

“투기자본 맥쿼리, 해양에너지 인수 시도 중단하라”

김동찬 의원 “도시가스 공급 독점면 시민 편익 뒷전 가스 요금 인상”

이경호 의원 “5·18 사적지에 아파트 안돼”...광주교도소 개발 반대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

최근 광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맥쿼리자산운용(주)의 해양에너지 인수 시도와 옛 광주교도소 부지의 민간인권기법과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시도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옛 광주교도소 조성 사업의 경우도 애초 취지와는 달리 아파트 건설 사업이 포함되는데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1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암묵 투기자본 맥쿼리는 해양에너지(옛 해양도시가스) 인수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민자도로 1구간 사업에서 광주시를 농락하고 지원금을 챙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장본인”이라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 자본이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빌미로 고이율의 돈을 차입하고, 이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가스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이다”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는 외주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스 공급망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수소에너지 기반 그린뉴딜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가스 공급망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도시가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 인프라이기 때문에 투기 자본이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소유할 경우 이용자인 시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매각 관련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공급수요 관리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시의회, 시민단체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해양에너지 모회사인 국내 사모펀드 글랜우드PE가 보유 자본 100%를 맥쿼리 자산운용사에 매각하려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며 “일련의 진행 과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장과 의장은 글랜우드PE에 협상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 사회와 먼저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해양에너지는 광주 전역, 전남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광주시민에 의해 성장한 회사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시민들에게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에너지 전문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를 매각해 민주·인권 기념 파크를 조성하는 광주시의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왔다. 이경호 광주시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18 광주항쟁 당시 민주화운동의 상흔이 깊게 새겨져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 부지 일부를 매각한 이익금으로 사적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5·18 정신 계승과 사적지 보존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지만, 5·18 사적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인지,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업의 순환인지 묻고 싶다”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역사적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선택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옛 광주교도소가 민주·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념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 방안엔 최선을 다해달라”고 광주시 에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동찬 시의원이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회기를 연다.

덕담부터 공격까지...민주 빅3 ‘이준석 돌풍’ 반응 온도차

이재명 “선전했으면 좋겠다”

이낙연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

정세균 “청년 정치인 구태 정치”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이준석 후보가 선전했으면 좋겠다”며 “이를 계기로 야당뿐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덕담했다.

돌풍의 밑바닥에는 여야 모두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깔려 있다고 보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른바 여당 ‘빅3’ 중 상대적으로 젊은데다 발언 스타일 등에서 여의도 정치권의 색채가 엷은 만큼 타

격이 달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지사측도 이준석 돌풍이 거셀수록 판 자체가 민주당에 불리해진다라는 점은 우려하고 있다.

추격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대응은 이 지사와 온도차가 있다. 상대적으로 기성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신구대결 구도 속에 세대교체 프레임이 부각될 경우 불리해진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총리는 연일 이 후보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전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구태 정치인 공작 정치를 말하고 있다”, “노화한 정치인들이 구사할 언어”, “생체 연령과 생각이 매치하지 않는다” 등 표현을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이는 선명성을 앞세워 이준석 돌풍에 위기감을 느낀 당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도 해석

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이 후보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의 ‘장유유서’ 발언과 관련해서는 “(청년 정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이후 2030세대 맞춤형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더해 캠프 내 청년 싱크탱크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정책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심 이준석 돌풍이 서둘러 걷히기를 희망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새로운 변화의 욕구가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국난을 헤쳐갈 위기 극복 리더십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정세균 5.4%... ‘마의 5%벽’ 깼다

이재명 27.5%·윤석열 27.3%

원지코리아 조사...이낙연 10.2%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마의 벽’으로 꼽히는 5% 지지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원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전 총리의 지지도는 5.4%를 기록했다. 정 전 총리의 지지도가 5%를 넘어선 것은 그가 대권주자 여론

조사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전체 후보 중에선 4위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7.5%로 1위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7.3%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0.2%였다. 이밖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4.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0%), 유승민 전 의원(2.9%), 최재형 감사원장(2.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3%) 순이었다.

최근 들어 야권후보로 대선출마 여부가 주목되는 최 감사원장이 다른 후발 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제 총리가 아닌 대선 후보 정세균으로의 이미지 전환이 된 것”이라며 “더 선명한 메시지로 존재감을 부각한 데 따른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주자 가운데 정 전 총리가 추전 장관에게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혼란 양상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대권주자 선호도는 이 지사가 30%로 1위였고, 이 전 대표(14%), 추 전 장관(5%), 정 전 총리(4%) 순을 기록했다.

이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김오수 총장에 임명장...“공정한 검찰로 바로 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을 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공정한 검찰”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회고록을 출간한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

럽다”며 “검정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돼 기쁘고 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싸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검찰이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배우자에게는 정의의 의미를 꽃인 락스퍼, 국민의 인권보호를 상징하는 말채 나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뜻하는 알스타로 메리아, 신뢰를 의미하는 아스타로 구성된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